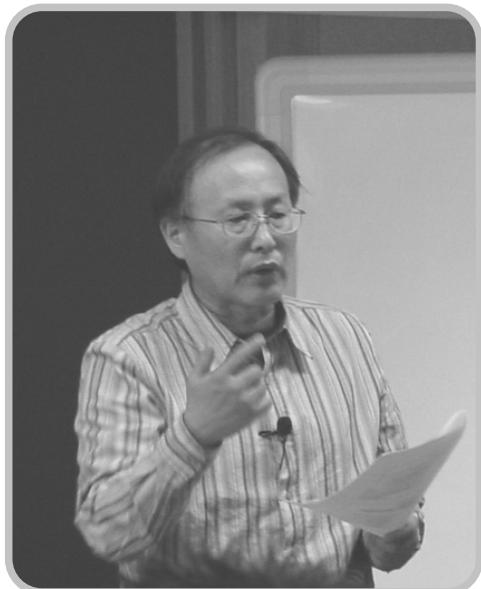


| 인터뷰 | 가르침에 대한 성찰

강명구 교수

이번 호에서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서울대학교 우수강의시리즈 CD 제 9편으로 제작된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역사: 현실에 근거한 체계적 사고과정〉를 맡은 강명구 교수(사회대 언론정보학과)를 만나 보았다.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역사〉는 2004년 1학기에 진행된 강좌로,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이란 매체가 생성·발전되는 과정을 근대사회의 형성이라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본다. 이 강좌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준비한 발표문을 동료 학생들에게 강의식으로 발표하게 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조사·연구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조사·연구의 과정에서 강명구 교수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의 조사와 연구가 개념의 파악, 이론의 이해에서 그치지 않고, 파악하고 이해한 것을 사회적 현실과 연관지어서 사고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되고 있다. 다음은 강명구 교수와의 인터뷰이다.

강명구 교수



한양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아이오와대학 언론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언론정보연구소 소장과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사회변동과 지식이전』(나남, 1998), 『한국 언론전문직의 사회학』(나남, 1993), 『소비대중 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민음사, 1993), 『한국 저널리즘 이론』(나남, 1994) 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역사> 강좌를 개설하게 된 배경과 기획 의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명구 교수: 본래 언론정보학과에 <세계 언론사>라는 강의가 있었습니
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신문 중심이어서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겠다고 생각해 현재의 모습으로 바꾸었
지요. 지난 100년간 또는 200년간의 근대사회 형성에서 책, 신문, 잡
지, 라디오, 텔레비전, 전신, 전화, 최근의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미디
어 테크놀로지는 사회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매체를 이해할 때 매체 자체로만 이해하는 것보다는 커
다란 역사의 흐름, 즉 근대의 형성 과정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습니
다. 그 흐름을 정리하고 파악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그러한 목표에 따라 실제 강의에서 다른 내용은 무엇
입니까?

강명구 교수: 인터넷이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현상을 고려해서 한국 인터
넷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왜 한국에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학생들과 교수가 함께 배워 가는 강의입니다.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역사에서 인터넷 이외의 다른 것들은 우리나라
가 초기 역사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외국에서 형성된
것을 가져다가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인터넷에 관해서는
우리도 초기부터 관여해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 역사가 많이 축
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번쯤 제대로 정리되
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료를 모으는 것이 힘들
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협회의 협조로 초기 인터넷에 관여
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두루넷에 있는 박현재 박사가 한국과학기술원에

서 하와이로 처음 보낸 이메일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지요. 이러한 사료들을 모아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강의는 넓게 보면 이런 프로젝트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을 인터넷 강국이라고 부르지만 왜 한국에서 인터넷 사용이 폭발적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자기들이 정책을 잘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기업들은 기업이 운영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인터넷 유저들은 자기들이 많이 써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브로드밴드(broadband)나 휴대전화가 매우 많이 쓰인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제조 회사들이 휴대전화기는 많이 팔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그런 것과 관련된 연구를 해야 장사도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언론정보학과 학생들은 정보통신 산업 쪽으로 많이 진출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사고할 수 있어야 점차 더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업계나 기술의 변화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배우는 강의가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역사>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역사>에서는 초청 강의가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그 배경과 과정, 성과는 어떠했는지요.

강명구 교수: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사용이 왜 폭발적인지에 대해서 강의 한다지만 정작 나에게도 사료가 없습니다. 아직 한국 인터넷 자체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인터넷협회에 연락해서 한국 인터넷 역사의 연대기를 만드는 데 협력할 테니 한국에서 초기 인터넷에 관여했던 엔지니어들, 기업의 CEO들을 초청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따라 열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그

것 자체가 역사적인 기록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왜 한국에서 브로드밴드(broadband)가 제일 먼저 보급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빠른 보급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초청 강사 한 분이 브로드밴드(broadband)의 가격이 너무 싸게 책정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강의 중에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싼 가격에 초고 속 인터넷 망이 보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의 말에 의하면 98년도 기준으로 6만5천 원 정도 했어야 하는데 시장조사의 부족으로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고 통신 회사들은 아직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은 학술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나 가격 책정에 깊이 관여했던 CEO가 한 말이니 기록으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외부 초청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없는 자료를 매우기 위한 방편이었고 학생들에게는 현장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초기 인터넷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이 산업이 현재처럼 성장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물론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흐름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기술 투자를 했

던 그 사람들의 판단력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 그런 증언을 함께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들에게 강의식 발표를 하도록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셨고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역사〉 수업에서 학생이 '강의식 발표'를 마치고, 강명구 교수의 논평을 듣고 있다.

강명구 교수: 협동학습 워크숍에 참가하면서 강의식 발표에 대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본래 학생들이 참여하는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협동 학습 워크숍에 갔다가 발표를 강의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강의에 도입해 본 것이지요. 결과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지금껏 가르친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가르치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것은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강의를 하려고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우선 학생들이 충분히 알게 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조별로 주제를 정하게 하였습니다. 한국 인터넷의 확산과 관련된 주제를 몇 가지 마련해 두고 학생들과의 토론을 거쳐 중요도에 따라 학생들에게 스스로 선정하게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학생들에게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게 했고, 그 강의계획서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학습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의계획서를 미리 수업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것에 따라 수업을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번의 면담이 있었고요. 대체로 성공적이었습니다. 학생들도 새로운 경험이라고 말하더군요. 한 가지 주제 안에서 어떤 한 이슈와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정하고 가르쳐 보는 것이 학생들에게 좋은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이제는 강의에서 수업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많이 일반화되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평해 주십시오.

강명구 교수: 웹을 보조 자료로 쓰면서 좋은 점은 강의의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쓴 것을 학생들에게 공개하면 학생들이 들어가서 보고 수업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수업 바깥에서도 수업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간에 상호작용이 생기고 그 상호작용을 다른 학생들이 보니까 수업 참여의 밀도가 높아지

는 것이지요.

교수학습개발센터: 강의를 듣고 난 후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강명구 교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을 얼마나 수업에 참여시키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체계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생각을 원하므로 특별히 교재는 쓰지 않는 편입니다. '한국 인터넷'에 관련된 교과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특히 체계에 길들여진 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하겠지요. 학생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에게 강의에 대하여 느낀 점을 자유롭게 써서 내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학생 참여를 많이 요구하는 강의이므로 그것에 재미를 느낀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무언가 배운 것 같은데 무엇을 배웠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을 조금씩 줄여 나가야 하겠지요. 그러나 의도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제 의도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상할까요? (웃음)

교수학습개발센터: 수강생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도 있으시겠지요?

강명구 교수: 학생들이 너무 취직을 위한 공부에만 몰두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목도 그런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주로 듣더군요. 이것은 사실 한국 대학의 위기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에서의 4년 동안 자유롭게 사고의 깊이와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취직 공부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한 강좌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범위를 좁혀 한 강좌 단위에서 그 문제를 본다면 학생들이 주어진 것들을 받으려고만 하지 스스로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대 학생들의 경우, 교재의 내용에 대한 정리 정돈을 잘 해서 개념과 이론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한 단계만 깊이 들어가서 물으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고가 거기에 멈춰서 있는 것이지요. 개념은 알지만 그것이 현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고민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물론 이론적 훈련, 즉 개념을 정확히 아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연관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고민거리와 문제거리를 도출해 내고 나름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줄 때에도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에 입각하여 냅니다. 본 강의에서는 ‘인터넷 체험’에 관한 에세이를 쓰도록 하였는데, 이런 주제에 관하여서는 남의 것을 베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업 홈페이지에 옮기고 학생들에게 서로의 글에 대하여 논평하게 한 후에 에세

이와 코멘트에서 나온 이슈들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라는 과제를 다시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인터넷의 문제가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직접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배움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노트

2004년 1학기에 개설된 강명구 교수의 강좌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역사〉 온라인 게시판. 강명구 교수는 ‘온라인 게시판’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인다고 말하고 있다.

올리게 하고 학생들에게 서로의 글에 대하여 논평하게 한 후에 에세이와 코멘트에서 나온 이슈들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라는 과제를 다시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인터넷의 문제가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직접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배움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노트

에 남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러나 학습의 과정에 이미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체계가 있기는 힘들지요. 오히려 체계를 깨야 배울 수 있는 과정인 것이지요. 한국의 인터넷에서 왜 브로드밴드(broadband)가 폭발적이었는지 하는 문제는 『정보사회론』과 같은 책을 백번 읽어도 답이 안 나오지요.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좀더 구체적인 현실로 돌려서, 현실에 견주어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선생님께서 교육자의 위치에서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 입니까?

강명구 교수: 학력 수월성을 갖춘 학생들이 자유분방하게 상상력도 키우고 현실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학 개혁의 이름으로 교수들은 본인의 연구에 몰두하고 학생은 전공과목에 관심이 없고 실용적이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학문에 몰두해 있습니다. 이것은 커리큘럼이나 교수 방법을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고하는 학생이 사회에 진출해서도 업무 수행 능력이 훨씬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언론정보학과에서 홈페이지를 잘 구축하고 서버를 운영하는 기술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전자회사나 정보통신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획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것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후자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서버를 운영하는 능력을 여기에서 배우고 본인이 열심히 하면 CEO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서버 운영 등의 기술적인 공부는 나가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배워 두면 좋겠지만 대학에서 배울 것은 보다 더 큰 상상력으로, 왜 텔레비전과 전화가 이런 방향으로 결합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컴퓨터 관련 과

목이나 정보사회론 과목을 하나 더 들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급의 펀드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과 종합적인 인식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기능적인 테크닉을 익혀서만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재를 키워야 할까요? 의심의 여지없이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학에서 1퍼센트의 학력 수월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능력을 가르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것은 교수들의 잘못만이 아니고 대학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항상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지원부 hwbio@snu.ac.kr